
고민했던 부분들

주체로의 동화 vs 객체를 닮아가는 동화:
주체로 환원하는 것은 무조건 폭력적인가?

- 인간이 세계를 인식방법은 주관적이다.
객체에 나를 이입하는 내면의 감흥을 강제절제
= 오히려 **예술의 자유를 침해**하는 것은 아닐까?
 - 아도르노, 벤야민 : 과도한 주체 배제는 아닐까?
당시 담론과, 지금의 담론은 다름
-

바람직한 서정시란?

- 주체와 객체의 균형이 구현된 시가 아닐까

“상호주체적 서정성이 구현된 시”
